

탄소중립 시대 전력그룹사가 앞장선다

한전, 탄소중립 이끌 전력 혁신본부 신설...최연소 본부장 임명 해상풍력 일괄설치 기술 개발·에너지 절약 우수 아파트에 포상금 한전KPS, 혁신산단에 2023년까지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전력그룹사들이 탄소중립을 향한 전진군을 내고 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탄소중립을 이끌 전력혁신본부를 이달 신설하며 파격 인사를 단행했고, 한전KPS는 오는 2023년까지 나주 혁신산단에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소를 짓는다. 지난 15일 발표된 한국전력의 조직 개편안은 '파격'으로 압축된다. 신설 조직인 전력혁신본부 본부장에는 최현근(53) 전력시장처장이 임명됐다. 최 본부장은 역대

최연소 본부장으로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공기업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전력혁신본부 산하에 신설한 지속성장전략처에는 40대인 주재각(49) 기획처 예산실장을 처장으로 승진 발탁했다. 한편 측은 "이번 인사의 핵심인 전력혁신본부장의 경우 한전 역사상 최연소 본부장을 임명했고, 조직 컨트롤 역할을 담당하는 지속성장전략처장으로 40대 처장을 선임했다"며 "획일적 보직 부여 관행을 깨고, 일과 능력 중심의 책임경영 구현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 한국전력 21대 사장으로 취임한 정승일(56) 사장은 취임사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전력의 탈탄소화, 분산화, 지능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력계통의 유연성과 탄력성 제고 등 혁신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하에서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전분야의 선제적 기술혁신, 에너지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강해져야 하며, 한전은 이들 산업 생태계와의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에너지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전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기반인 핵심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2030 에너지전환 선도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은 앞서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해상풍력 발전기를 열을 만에 바다에 설치할 수 있는 '해상풍력 일괄설치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신안 해상풍력단지에서 적용하기로 했다. 이의 광주지역 에너지 절약 우수 아파트를 선발해 포상금 100만~최대 1200만원과 '절전 인센티브'(지원금)를 주고,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어 전기 절감 목표를 달성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절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전KPS는 나주 혁신산단단지에서 오는 2023년까지 30MW 규모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소를 짓는다. 한전KPS는 최근 한국남부발전, 네오마루, 신한자산운용, 아이티에너지 4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 발전소는 전력 생산과 함께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산단단지 내 입주기업과 인근 농업단지에 열을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

11월 완공 목표다. 협약을 통해 한전KPS는 EPC(설계·구매·건설) 대표사 역할을 한다. 남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및 발전소 운영을 맡고, 네오마루는 사업개발 및 EPC 참여, 신한자산운용은 자금조달, 아이티에너지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업개발 주관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발전소 건립을 통해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수소산업 육성, 산단단지·농가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한전KPS 측은 기대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연료전지 발전소는 친환경과 신재생을 대표하는 '그린 에너지' 분야의 신사업으로, 탄소중립시대에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환경을 생각하는 ESG 경영정책에 맞춰 발전설비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고품질 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휴가철 전력 공급 걱정 말아요" 전력거래소는 본격 휴가철인 7월 다섯째 주(26~30일)는 여름철 휴가 영향에 따라 최대전력 수요는 88~90.1GW로 추정되며, 예비력은 10.3~11.4GW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나주 본사 중앙전력관제센터 모습. <전력거래소 제공>

농어촌공사, 지역개발 전문가 500명 양성

2011년부터 자격 제도 운영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퍼실리테이터'와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등 농어촌 지역개발 전문가를 지난 2011년 이후 총 500명 넘게 양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퍼실리테이터'와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등 2가지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개발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정착 단계까지 지역주민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마을주민 간 갈등 해결 ▲마을발전을 위한 농어촌현장포럼·워크숍 등 기획·진행 ▲지역개발사업의 예비·기본계획 수립 ▲역량강화사업 추진 등이 있다.

'농어촌퍼실리테이터'는 주민 스스로 마을자원을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회의, 워크숍 등을 기획·진행하는 회의진행 전문가를 말한다. '농어촌개발컨설턴트'는 지역개발사업의 조사·연구·계획·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이론과 경력을 갖춘 현장실무형 전문가이다. 농어촌퍼실리테이터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58명이 배출됐다. 농어촌개발컨설턴트는 2014년 국가공인자격으로 승격된 이래 지금까지 총 300명이 전문가 자격을 얻었다. 농어촌공사는 오는 9월 중으로 '농어촌퍼실리테이터'라는 이름을 '농어촌 소통지도사'로 확정 변경할 예정이다. 올해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수료자는

53명이다. 이들은 자격검정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보게 된다. 농어촌개발컨설턴트는 1차 필기와 2차 직무시험을 거쳐 오는 10월께 최종 선발된다. 합격자들은 이후 농어촌 여건 및 전망과 관련된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보충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균형발전의 핵심공간으로 재설정하고 일터·살터·쉼터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촌공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수단으로 농촌협약을 통해 행정구역 및 생활권을 대상으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폭우 피해기업에 보증료율 0.1% 특별보증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는 전남 폭우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보증료율 0.1%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장흥과 강진, 해남, 진도(진도읍·군내면·지산면) 등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정부·지자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상당 운전자금을 보증받을 수 있다. 시설 자금은 소요금액을 한도로 지원한다. 대상 기업에 대해 보증비용(90%)을 우대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0.1%의 최저보증료율만 적용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ICT·AI기업 지역 인재양성 및 채용 연계 업무 협약식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우선채용 협약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탁용석·앞줄 가운데)은 27일 남구 송하동 광주CGI센터에서 광주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28개사와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교육생 우선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는 지난해 1기 수료자 150명을 배출하고, 올해 180명을 교육하고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공>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매매가 : 540,000,000원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상담 010-3733-3933